

<새날기쁨>과 미래 여성지도력

박영숙 본지판 이사장

심각하고 거침이 없는 5월 하순 31일 동안 100명의 선두주자로 시작된 2004년도 기부원레이에 3100명이 참가하여 <새날기쁨>이 마련되었다. 이기쁨은 여성들이 이끄러가는 힘과 깨끗한 살맛나는 세상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이 되는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육성하는 일에 산여지게 된다.

얼마전까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우리 사회의 주된 과제였던 시기를 거치며 최근 몇년간에는 지금까지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었던 다양한 분야에 "여성"라는 수식어가 떠도는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지난 4.15 총선에서 역대 최대수인 39명의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문호는 앞으로 활짝 열려지 충분히 기대 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추세는 인구의 반인 여성들의 대폭성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가 인사를 당면하기 시작하여서 일찍이 무엇보다도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직 사회의 많은 여성들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그 동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들이 힘있게 참여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자라고 형식적인 이념 사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여성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공공기관에서의 여성들의 진출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기회는 열려 있어 여성 자립형 태도가 여의치 않음에 따라 2기회가 2집의 경우로는 여겨지는 여성인재들이 사회구성 구성에 다수 있다. 우리주변에 양간의 사회적인 뒷받침만 있어도 사회를 이끄러갈 자라나고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인재들이 많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단이 마련해놓은 것이 <새날기쁨> 프로그램이다.

기부원레이에
참가

재단에서는 여성들의 가장 활동의 전방면에 걸쳐서 자립형의 길은 열려주며, 양질의 교육과 교육들이 있어서 진학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근년에 조성되는 새날기쁨은 장학금을 보다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적 주위에 관심 있는 국제적 활동 등에 대한 인적형성을 위한 상부관제 활동 등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이지 애병자라고는 다수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애병들의
경제교육 수준이나 경제교육 내용 상충하여 활동 등을 권장대로 활용하려 못하는
것도 국가적인, 사회적인 뒷배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필요한 자라야 하는
전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나 부러워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상 애병들의 대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사실상 애병으로 이어 '100인 개작'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어갈 것이다. 내각 내각하는 것은 애병이 자라나서 자라나서
애병자로 되어가는 애병들에게 비유적 노력을 안겨줄 수 있는 데로 '남겨
주' 같이 우리 개작에 큰 도움이 이나겠는가? 효과 있을 수는 있
지만 애병으로 해서 일반으로 뜻을 함께 하면 북해 백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애병 자라도록 키워낼 수 있도록 한다.